

작가와 詩가 있는 오후

백시종 소설가 / 시낭송·시화전

일 시: 2007년 1월24일(수) 오후1시

장 소: 곡성군민회관 소강당

주 최: 곡성문화원, 자운영독서회·설산의향기독서회

후 원: 곡성군청, 새마을 운동 곡성군지회

|작|품|론|

허위, 가식, 인습의 삶, 그 저편의 순수를 향해

—백시종의 중 · 단편 작품 세계가 말하는 것

장경렬

1

백시종의 수많은 중 · 단편 소설을 읽어 가는 과정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인도제도의 아름다운 섬나라 자메이카의 여성 시인 헤더 로이즈(Heather Royes)의 '테어필러스 조운즈는 벌거벗은 채 킹 스트리트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라는 시다.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시월 십팔일 월요일에 / 테오필러스 조운즈는 벗어 젖혔다, /

아스팔트처럼 새까맣고 녀마 같은 자신의 팬츠를, / 그리고 벌
거벗은 채 킹 스트리트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 그 날은 공휴일
이었지— / 그래서 다만 몇 사람만이 보았지, / 의기양양한 그
의 활보를, / 갈색 털이 덮인 그의 억센 몸을, / 앞에서 털러거리
는 그의 성기를. / 테어필러스 조운즈는 오래 전부터 / 이렇게
하고 싶었다.

테어필러스 조운즈가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 세차장 종업원 몇 명이 “미친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그를 따라가지만, 그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오던 길
을 따라 되돌아간다. 그가 경사진 길을 따라 바닷가로 걸어 내려왔을 때 선
착장에는 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배가 언제 오는가에 신
경을 쓰고 있던 그들은 벌거벗은 채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테어필
러스 조운즈를 보지 못한다. 그는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더 이상 걸
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자 헤엄을 쳐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이윽고
“수영을 멈추고는 / 햇볕을 즐기며 잠시 떠 있다가” 그는 “몸에 힘을 빼고는
/ 바닷물이 그의 몸을 / 삼키도록 내버려” 둔다. 마치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소설 ‘행복한 죽음’ (*La Mort heureuse*)의 주인공 파트리스 뫼
르소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천히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
이하듯. 테어필러스 조운즈의 ‘행복한 죽음’은 이렇게 묘사된다.

테어필러스 조운즈의 몸은 가라앉았다, / 천천히. / 굽혀진 그의
다리가 천천히 가라앉고, 천천히 / 그의 머리 위에 얹은 팔이 가
라앉고 / 천천히 타래진 그의 머리가 가라앉았다, 천천히. / 마침
내 그의 몸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 오렌지 껍질 몇 개가, 낡은 주

석 깔통 하나가, / 그리고 바닷물에 흠뻑 젖은 담배 상자 하나가 /
 그가 침몰한 자리 위를 떠돌고 있었다. / 그러는 동안 바로 그 근
 처에서 / 느린 해류 위에서 작은 물고기를 찾아 헤매던 / 물총새
 한 마리가 몸을 틀어 / 내려앉았다, /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 위,
 물보라 이는 바다 위로.

그의 죽음과 상관없이, 또는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함이 없다.
 아무런 동요 없이 무심하게 세상은 제 갈 길을 따라갈 뿐이다. 그의 죽음이
 전과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항구의 바다 위를 떠돌고 있고, 먹이를 찾아 헤
 매는 바닷새의 움직임은 여전하다.

테오필러스 조운즈가 “오래 전부터” 나체가 되어 거리를 활보한 다음 바
 다에 몸을 맡기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시인은 이에 대해 아무 말
 이 없다. 하지만 그가 벗어 젖힌 “아스팔트처럼 새까맣고 넘마 같은 자신의
 팬츠”는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허위, 가식,
 인습의 옷이 아닐까.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친놈” 취급을 받을 수도 있
 고 또 냉소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무시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려는 몸짓을 취하는 사람들이 우
 리들 가운데 있다. 그것이 비록 테오필러스 조운즈의 경우에서 보듯 죽음
 을 향한 것이라고 해도.

한편, 테오필러스 조운즈가 죽음의 장소로 택한 것은 바다인데, 바다란
 무엇인가. 프랑스어로 ‘바다’ (la mer)는 ‘어머니’ (la mère)와 발음이 같아
 서, ‘행복한 죽음’의 주인공 뫼르소의 죽음은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만일 이런 해석을 테오필러스 조운즈에게도 적
 용하여, 그의 죽음 역시 어머니에게로 되돌아감 — 또는 어머니와도 같은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감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문명을 거부할 때 유일하게 대안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연이다. 비록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논리에 따라 자연이란 문명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문명을 뛰어넘는 순간 자연 자체도 무화(無化)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도, 말하자면,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부단한 몸짓 자체를 멈추지 않는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비록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같은 테오필러스 조운즈의 기행과 죽음은 백시종 소설의 중요 모티프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선창가' (1973), '인간복' (1974), '서울 바다' (1975) 등의 작품에서 우리는 이른바 허위, 가식, 인습이라는 옷 — 겉으로는 번지르르하나 속으로는 너무도 남루한 옷 — 을 벗어 던지고자 하는 인간들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몸부림을 읽을 수 있다. 나아가, 백시종의 작품 세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와 바닷가를 무대로 한 소설들 — 예컨대, '망망대해' (1974), '환상 바다' (1975), '비진도' (2004) 등의 작품들 — 에서 원초적 자연의 품인 바다를 향한 인간의 본능적이고도 순수한 몸부림을 읽을 수 있다.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이를 향한 몸부림이 곧 죽음을 의미할 만큼 위험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결코 뿌리칠 수 없는 매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그 매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답다. 백시종은 일찍이 그의 작품집 '망망대해' (범우사, 1976)의 후기에서 "그 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어려운 인생살이 중에서 약간씩 맛보는 생의 아름다움' 과 '대자연인 바다와 투쟁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억센 투지' 를 중점적으로 다뤄 보았다" 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그의 말은 앞서 우리가 지적한 작품 세계의 두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로이즈의 시에서 별거벗은 테어필러스 조운즈를 “미친놈”이라고 하거나 그의 존재에 아예 관심을 가질 틈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듯, 백시종의 작품 세계에는 “새까맣고 녀마 같은” 삶의 옷으로 자신들의 사악하고도 그로테스크한 몸을 감싼 채 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를 대표하는 작품들로는 ‘아침하는 거울’ (1976), ‘귀공자’ (2003), ‘비아그라’ (2004)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만으로 백시종의 소설 세계가 전부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상의 다리’ (1984), ‘갈산만의 새’ (1990), ‘서랍 속의 반란’ (2003) 등과 같이 가진 자의 욕망, 이기심, 악의에 맞서 싸우는 선량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짚어 나가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너머 북촌’ (1975)과 같이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인습적, 윤리적 갈등을 그린 작품이나, ‘그 여름의 풍향계’ (1998)나 ‘이과수’ (2001)와 같이 이민자의 내면 풍경과 삶의 내력을 그린 작품들도 백시종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작품군(群)으로 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하는 ‘아버지의 어깨’ (1993)나, 공권력 앞에서 무력하기만 한 소시민의 삶을 다룬 ‘검문’ (2000) 역시 백시종의 작품 세계와 만나고자 할 때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백시종의 중·단편 소설 세계를 개관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의 목록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 인간 개개인의 삶이 하나하나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소유주이듯, 그의 작품들 하나하나는 결코 쉽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소유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시종이 앞서 언급한 ‘망망대해’의 후기에서 “내 나뭇대로는 모두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작품은 하나하나 나뭇의 애정 어린 언급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지면을 감안하여,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헤더 로이즈의 시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는 (1) 허위, 가식, 인습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몸부림과 (2) 바다로 상징되는 자연을 향한 몸부림을 담은 작품들을, 그리고 (3) 허위, 가식, 인습뿐만 아니라 타락된 문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 백시종의 소설 세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백시종의 '인간복'에는 세 사람의 주요 인물—소설 속 화자인 '나'와 '나'의 아내, '나'의 아버지—이 등장한다. 이들 모두는 이른바 시류에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한계 인간들이다. 먼저 '나'는 아버지 덕분에 얻은 직장에서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외톨박이'이며, 집에서는 '진망증, 공상력, 떡 먹듯 하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아내를 걱정과 불안으로 몰아간다. 아내는 어떠한가. 그녀는 첫 아이를 잃은 이래로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황감'에 시달리며 '병적인 행동'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한가. 그는 '네 번이나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아들집에 기식하며 소일'하는 사람으로, 아들이 용돈으로 갖고 다니는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 주거나 공원 등지에서 꽃을 꺾는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 일과일 만큼 '특이하고 기묘한' 동시에 '광적'인 '애국심'의 소유자이다. 그가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거나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은 모두 국고와 나라 재산을 아끼기 위함이다.

이처럼 모두가 세속의 눈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다. 현실 속에서의 이들의 삶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물론 이들

끼리의 삶도 갈등의 연속이다. '나'의 아버지는 '붓과 벼루와 먹'을 아들에게 빼앗겨 내동댕이침을 당하지만 아무런 노여움도 드러내지 못한 채 상황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쫓아내 버려요!"라는 며느리의 발작적인 고함에도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 가출해서는 며칠을 떠돈 다음 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한편, '나'의 아내는 아기를 갖고 싶어하나, 시아버지가 '감시'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증' 때문에 남편과의 성생활이 원활치 못하다. 어쩌다 아버지가 가출이라도 하면 "아내가 조롱 속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온다. 그리하여 성행위가 이어지나 그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부부 사이의 성적 갈등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다음 인용에서 '나'의 무기력함과 아내의 불만을 너무도 생생하게 드러낸다. 비유의 섬뜩한 아름다움 때문에 생생한 시적 긴장감마저 감도는 아래 인용—아니, 그 자체를 한 편의 시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아래 인용—의 어느 구절도 놓치고 싶지 않다.

[아내는] 날개를 퍼득이며, 마구 날아다닌다. 흡사 너무 간혀 있어서 날개가 퇴화된 것이 아닌가 혼자 겁내며 당황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난다. 화장대에도 앉아 보고, 결혼 사진틀 위에도 앉아 보고, 천장에도 거꾸로 앉아 보고, 책도 쫓아 보고, 내 머리칼도 쫓아 보고, 마침내 창을 향해 짹짹 날아간다.

하나, 우리가 가로막고 있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한다. 앉았다 미끄러지고 앉았다 미끄러지고, 그런 짓을 계속한다. 아내는 적극적이다. 나는 적극적인 아내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하나 잘 되지 않는다. 미리 겁을 집어먹고 권투 선수처럼 일라운드나 이라운드쯤 해서 펍 쓰러지고 만다. 아내는 불만이다.

표범이다. 쓰러져 있는 나를 무겁고 두꺼운 발톱으로 이리저리 굴린다. 그러다가 혼자 맥이 풀려 나를 올려보는데, 그것은 얼간이야, 바보야, 멧덩구리야, 절름발이야, 병신이야 라고 욕설을 퍼붓는 듯한 미묘한 시선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다. 언젠가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용돈을 다려 주는 것이 구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아버지는 “그건 진리다”라고 대답한다. 이어지는 대화를 좀 더 살펴보자.

“아버지 혼자만의 진리예요.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는 진리는 보편성이 없어요. 진리는 아버지 말씀처럼 만인의 것이어야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 애비의 진리는 비록 소수의 것이지만 변하지 않아! 수시로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오늘 옳았던 것이 선거 같은 것으로 내일은 틀려지고, 내일 틀렸던 것이 모래는 옳고, 그런 따위의 진리는 만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전근대적인 진리예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를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모두가 검은 것이 옳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혼자 굳이 흰 게 옳다고 고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아버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 직장에서 광고 문안 때문에 상사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모두가 검은 것이 옳다고 하는데” “혼자 굳이 흰 게 옳다고 고집”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능률과 적응과 생산성만이 가치의 척도인 집단”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인간 본연의 싱그러운 자주”와 “창조”와 “개성”의 상실에 대한 탄식에 빠져들기도 한다. 요컨대, “시대를 착각하고 살”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파국을 맞이하게 마련이다. 이는 먼저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가출한 아버지의 시신이 “어느 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발가벗은 채로 발견”된다.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하면서 ‘나’는 “육신은 달나라에 가기 위한 우주복 같은 인간복(人間服)에 불과한” 것, “영을 위한” 일종의 옷에 불과한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다. 이어서 아버지의 죽음 뒤에도 여전히 시아버지가 옆방에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나’의 아내가 심각한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다. 파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죽자 회사의 사장으로 부터 ‘나’는 해고 통지를 받는다. 아버지와 직장을 잃은 ‘나’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아내를 찾아 병실에 들어선다. 아내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젓가슴에 안고 있던” “때 끼고 뉘 새나는 푸르스름한 강보” —나와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오래 전에 죽은 아이가 덮고 있던 강보—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 ‘나’는 그 강보를 “뉘아채”고는 “도둑처럼 날쌔게 병실을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나’는 “발가벗고 죽은 불쌍한 아버지”를 떠올린다. 이윽고 ‘나’는 명동 거리 한복판에 이르러 상상 속의 “원시림”에 들어선다. 그리고는 “인간복 위에 또 한 겹 발라 놓은 가식의 벽을 아버지처럼 나는 과감히 허물어뜨린다.” 마치 헤더 로이즈의 테오필리스 조운즈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복’의 줄거리를 따라 읽는 이상의 논의를 가급적

삼간 이유는 이 작품에 덧붙이는 그 어떤 형태의 자살할 논의도 모두 첩사(贅辭)로 보이게 할 만큼 '인간복' 이 스스로 말할 것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마디 첩사를 달지 않을 수 없다. '나' 의 입을 빌려 작가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 쳤을 때 "세상과 타협을 안" 함으로써 미친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의 길은 바로 허위, 가식, 인습의 옷벗기였다고. 또한 어쩌면 그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작가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허위, 가식, 인습의 옷벗기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대표적 작품들로는 '선창가' 와 '서울 바다' 가 있다. 우선 '선창가' 는 "반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수 억만대의 돈을 강탈하다시피 하여" 돈을 거둬들인 "사장님" 의 돈 "칠백만 원" 을 "횡령" 하여 "생소한 최남단 항구도시로 도피해온 나" 의 이야기다. '나' 는 그 돈으로 배를 사서 "내가 살아도 괜찮을 섬, 피신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섬, 그곳을 기점으로" 삼아 "바다만을 상대로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고자 한다. 한편, '서울 바다' 의 경우, 장의사를 경영하며 누군가가 "죽었다는 전화" 만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반가워" 하는 형한테서 돈을 훔친 다음 "배를 사서 고기를 잡으며 남해안 섬에서 살" 려고 했던 한갑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은 남해안의 섬을 목적지로 삼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해안 섬으로의 도피는 그들에게 허위, 가식, 인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는 "새까맣고 녀마 같은" 삶의 옷벗기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새까맣고 녀마 같은" 삶의 옷을 벗기 위한 이들의 몸짓은 각각 "구차스럽기 그지없" 는 "행장" 의 "노인" 과 그들 가족과의 만남 및 "밑이 찢어지게 가난" 한 순자라는 소녀와 그녀의 두 동생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창가'의 '나'나 '서울바다'의 한 갑동에게 허위, 가식, 인습의 옷벗기가 어찌 우리네 현실 속에서 가능할 수나 있겠는가! 감옥을 탈출하여 이국의 바닷가에서 한가롭게 삶을 살아가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간첩이나 살인자로 체포되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어쩌면 그것이 허위, 가식, 인습의 옷을 벗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혹시 영화와 같은 결말을 소설에서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일 작가가 작가의식 또는 현실 인식을 저버린다면 그런 결말의 작품을 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한 편의 의미 있는 문학 작품이기를 포기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리라.

3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백시종의 작품 세계에는 바다와 바닷가를 무대로 한 작품들이 눈에 띄게 많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초기 작품이 '망망대해'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선주 겸 선장인 김구식이 "만선에 가까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심"을 부리는 바람에 그의 배인 풍년호는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표류 끝에 결국 풍년호는 "오십 배나 더 큰 일본 어선"과 만나게 되고, "부산"까지 인양되기 위해 "뱃줄"에 묶여 끌려가기에 이른다. 문제는 서투르게나마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석근이 영감"이 일본 배에 올라가 인양에 소요되는 엄청난 "경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서 비롯된다. 엄청난 경비 지불은 곧 "구식이 선장"에게 배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구식이 선장"은 인양을 포기하고자 하나 선원들과의 갈등 끝에 그들한테 "몰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다. 그런

상태로 “쓰러져 누워 있던 구식이 선장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일본 배는 하나의 “거대한 괴물같이 보”인다. 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는 “그물더미를 잡고 몸을 일으”킨다.

하나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렁이처럼 엮디어 기었다. 펄 문은 그물더미와 상자더미에 얼굴을 찍히며 온 힘을 다해 일본 괴물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향해 기어나갔다. 그는 마침내, 일본 어선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풀고 말았다. 하나 갑자기 밧줄이 풀렸으므로 커다란 반동이 생겼고, 그 반동에 의해 풍어호는 앞으로 곤두박질을 했다. 굉장한 속도로 풀려 나가는 밧줄이 구식이 선장의 허리를 감아버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밧줄에 감겨 바다로 떨어졌다. 바다가 그를 먹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김구식 선장이 망망대해에 떨어져 박히는 광경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이야기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표류되었던 배가 인양되기에 이르렀고, 엄청난 인양 비용 때문에 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구식이 선장”이 “일본 어선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풀어 버리는 순간 밧줄에 묶여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 전부이다. 이 작품을 놓고 어떤 비평가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면서,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면 풍어호는 무사히 항구로 귀환할 수” 있을 것임을 말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같은 독해는 작품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결과로 보인다. “구식이 선장”의 “욕심”이 어찌 “물질적 욕망”에 대한 “집요한 관심”의 표현인가. 이 비평가는 “구식이 선장”의 죽음이 “물질적 욕망”

에 대한 “집요한 관심”의 결과인 양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 자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닐까.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면 풍어호는 무사히 항구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니? 이런 식의 일차원적인 소박한 논리—작품 자체와는 상관없는 비문학적이고도 작품 외적인 논리—는 피상적인 작품 읽기의 결과가 아닐까.

문제의 비평가에게 묻고 싶다. 과연 “구식이 선장”의 “물질적 욕망”이 지나침과 이에 따른 파멸을 드러내는 것이 이 소설일까. 이런 물음에 선부른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인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온통 시커멓다. 파도는 한 순간도 죽는 법이 없이 거칠고 날카롭게 솟아올랐다가 사그러진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비도 내리지 않으면 바다는 안개로 자욱했다. 사흘째 되는 지겨운 어둠이 그런 바다를 서서히 먹어 오고 있다.

어둠은 공포감을 배가시킨다. 아무런 하는 일 없는 어둠은 더욱 그렇다. 고무 우장을 뒤집어쓰고, 그물줄을 도르레로 감고, 손으로 끌어올리고, 소리소리 지르고, 욕지거리를 퍼붓고, 노래를 부르고, 땀방울인지 파도의 포말인지 알 수 없는 짜디짠 물기를 헛바닥으로 감아 넣고 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퍼덕이는 인빛 고기를 그물에서 떼어낼 때의 그 기쁨. 고기들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한 순간도 죽는 법이 없”는 바다, 거칠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 때로 어둠의 공포로 휩싸이는 바다, 바로 이 바다야말로 매혹의 세계이다.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은 마치 전설 속의 뱃사람들이 바다의 요정 사이

렌의 유혹에 이끌렸듯이 매혹의 바다에 이끌린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간 대가로 뱃사람들에게는 “퍼덕이는 인빚 고기를 그물에서 떼어낼 때의 그 기쁨”을 누릴 것이 허락된다. “구식이 선장”의 “욕심”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 매혹의 바다가 주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그가 “어느 선주보다 배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그가 다른 선주들과는 달리 뱃사람으로서 바다의 매혹과 바다가 주는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사실 그가 고기를 잡을 때 배에 기관 고장이 생길 만큼 무리했던 것도 “빚을 청산”함으로써 배를 완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고, 배가 인양되는 것을 중도에서 포기하려 했던 것도 자신의 배를 잃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에게 풍년호를 잃는다는 것은 곧 바다를 향한 의욕 자체를 접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구식이 선장”에게 풍년호를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를 잃지 않고자 함이 어찌 물질적 “욕망”에 대한 “집요한 관심”일 수 있겠는가. 아니,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즉,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여” “자기 소유의 배를 갖는다는” “최대의 소망”을 이룬 사람이 그 배를 잃는다면, 어찌 그가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배를 가져 본 적이 없는 다른 뱃사람들은 아마도 “구식이 선장”이 처한 이와 같은 정신적 위기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호랑이가 먹이를 뜯듯, 그들은 금방 구식이 선장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리라.

논의가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필이면 작가가 “구식이 선장”과 같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는 바로 세상을 보는 작가 백시종 특유의 눈길이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어느 경우에도 자연—백

시종의 작품 세계에서는 주로 바다 — 에 매혹되어 삶을 살아가거나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탐욕과 가식과 위선의 삶을 거부하려 하거나 거부한 사람들, 성실하고 착하며 선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파멸에 이른다. 마치 서양 고전 비극에서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들인 주인공(hero)이 그들 나름의 결함(harmatia)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내몰리듯. 또는 허위, 가식, 인습의 옷을 벗어 던지고자 했던 ‘선창가’, ‘인간복’, ‘서울 바다’의 주인공들이 그러했듯.

바로 이 같은 작가의 눈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비진도’이다. 세속적 부와 명예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자연의 오묘한 현상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 “자연 앞에서는 절대로 욕심 부리모 안” 됨을 알고 있는 사람, 생명의 섬 비진도를 둘러싼 바다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 오주팔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에서도 작가의 눈길을 냉정하기만 하다. 작가는 냉정한 관찰의 눈길을 통해, 그리고 그 특유의 필치와 입심 — 또는 경상도 남단의 섬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풍취를 감칠맛 있게 살려내는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 — 을 통해, 오주팔이 필경 사람들에게 의해 비진도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음을 더할 수 없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오주팔과 같은 사람이 추방당한 다음 섬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작가의 종말론적 시선, 그것이 어찌 “비진도 연안”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미래의 타임머신을 타고 비진도 연안에 내리면, 아무것도 없다.
미토콘드리아도, 진행 세포도, 세균도 없다. 말 그대로 잿빛 암흑의 긴 터널만 끝없이 이어질 뿐이다.

바다는 매혹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각별히 주목할 만한 또 한 편의 작품이 '환상 바다'이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어느 날 홀연 "기계 배"를 몰고 고향에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한 "꼭저구"라는 별명의 사나이와 그 사나이의 "유일한 핏줄"로 사람들이 "단정"하는 석수가 두 축을 이루어 전개된다. "꼭저구"라는 별명의 사나이에겐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그가 "사촌을 죽"인 사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를 내는 모습이 "보기에 무섭고 괴팍한 고기"인 "꼭저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백시종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느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꼭저구는 "젊은 날의 거의를 바다에서 보냈"던 사람이며, 동시에 '비진도'의 오주팔이 그러하듯 "늘 소박하고 겸손"하며 "인정미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도 "안개와 같은 이야기"들에 휩싸여 있는 신비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의 신비로움은 "물건 꼬트머리에 흑이 달린 이상야릇한 사내"라는 소문과 함께 그가 "거느리는" 여러 명의 여자들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한편, 석수 역시 아버지를 닮아 대단한 "물건"을 갖고 있으며, "아무리 한 핏줄을 타고난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이토록 같을 수가 있을까"라는 반문이 저절로 나오게 할 정도로 여러 면에서 꼭저구와 닮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또한 "나이가 들고나서 줄곧 남의 배를 타왔"던 사람으로, 현재 꼭저구와 "장어통바리 작업"을 한다. 하지만 석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떨어져 죽은 "궁창이 굴"에서 발견한 "괴물 고기"를 사냥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다.

[괴물 고기는] 너무나 컸다. 몸뚱이가 먹을 갈아 부어 놓은 것처럼 검었고, 온 전신에 싯붉은 뿔이 들쭉날쭉 돋아나 있었다. 그것

은 고기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웠다. 그 거대한 괴물이 궁창이굴
웅덩이의 얇은 물가에 나와 지느러미를 늘어뜨리고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석수는 그 광경을 낭떠러지 위에서 보았다. 사각형
의 하늘[로] 내려 짙는 유월달의 햇빛과, 야단스러운 색깔로 반사
되어 눈을 시게 만드는 고기의 비늘과, 굴 안으로 차고 들어오는
파도의 우렁찬 소리와, 구멍이 송송 난 바위에 집을 짓고 사는 바
다비들기의 울음소리와 그것은 한데 엉어리져 석수의 심장을 등
등 울리게 하는 것이었다. 야릇하고 미묘한 호기심이 발동을 했
다.

“아버지가 거느리는 여자들”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역겹고 지저분하고
싫”다는 느낌이 들던 어느 날, 석수는 아버지의 배를 타기를 거부하고 “궁
창이굴”로 괴물 고기를 사냥하러 나선다. 그리고 “땅에 반이나 굶혀 따라”
올 정도로 큰 괴물 고기를 마침내 잡은 다음 이를 “어깨에 둘러업”고 마을
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거대한” 그 괴물 고기에 눈길
을 주다가, 그것이 바로 “꼭저구”임을 알아차린다. “용왕님이 노”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런 물고기를 잡아온 석수를 나무라는 사람도 있다. 한편, 그
날 석수의 아버지 꼭저구가 “혼자 타고” 바다로 나간 배는 “마을 사람들의
배가 모두 돌아와도, 세 개의 남포불 기름이 다 없어져도” 돌아오지 않는
다. “태풍이 끝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역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꼭저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꼭저구의 운명은 어쩌면 바다에 매혹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견하고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석수는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도 괴물 고기와 겨루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데, 이 역시 바다에

매혹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낌직한 유혹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환상 바다'에 대한 논의를 끝맺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이 작품이 일종의 신화적 해석까지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자비롭고 신비로우면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아버지 — 거의 신적인 존재와도 같은 아버지 — 에 대한 아들의 반항은 전설이나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또한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제압한다는 이야기 역시 신화적 무게를 갖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환상 바다'는 충분히 신화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작품 아닐까. 말하자면, '환상 바다'에서 석수가 아버지의 여자 관계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는다는 점, 아버지가 “꺾저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석수가 잡은 괴물 고기가 우연히도 “꺾저구”라는 점, “바람도 그치지 않고 비도 그치지 않”는 “폭풍” 속에서 석수가 그 괴물 고기를 잡았다는 점, 또 석수가 괴물 고기를 잡은 바로 그 날 아버지의 종적이 묘연해지는 점 등등 때문에 '환상 바다'는 결코 예사로운 소설로 읽히지 않는다. 아마도 이 작품에 대한 만족스러운 분석과 해설은 토속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민담, 전설, 신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4

허위, 가식, 인습에 묶여 타락된 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 — 특히 우리 시대의 어지럽고 희한한 세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상 — 을 그린 백시종의 작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침하는 거울', '귀공자', '비아그라' 등이 있다. 비교적 초창기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침하는 거울'은 “미남”인 데다가 “재빠르고 날렵”하며, “여자 박사라

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방면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처세술에도 대단히 능한 박대용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박대용은 출세를 위해 “경리과 직원 미스 조”를 유혹한다. “미스 조”는 회사 돈을 유용하면서까지 비밀스러운 애인 박대용과 밀회를 즐긴다. 하지만 “여자 박사”로 소문난 그답게 박대용은 “미스 조”뿐만 아니라 “여가수 출신의 사장 애첩”과도 “놀아나기”에 이른다. “본시 그런 면에서 능숙”한 여자인 “사장 애첩”에 “완전히” “빠져” 든 박대용은 밀회 비용 마련을 위해 “미스 조”에게 점점 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스 조”는 “추적”을 통해 박대용과 “사장 애첩”이 놀아나는 장면을 목격한다. 박대용이 “다른 고참 계장들을 물리”치고 “과장으로 승진하는” 바로 그 날, “미스 조”는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동맥을 끊”어 자살한다.

통속적이고 뻔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 소설은 박대용이라는 인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 우리 시대의 세태를 실감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땅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사실 백시종이 발표한 이런 부류의 소설 가운데 압권은 ‘귀공자’로, 이는 인물과 그 인물의 행동을 더할 수 없이 입체적이고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온갖 악당들 가운데 특히 실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 인물이 조봉삼과 그의 “행남”인 박준호다. 조봉삼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은닉한 죄로 박준호 및 그의 일당과 국외 탈출을 기도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원조 교제의 유혹에 빠져 탈출 대열에서 빠져나간다. 다급한 순간에 원조 교제라니! 머리는 없고 몸만 있는 이 인간은 원조 교제의 현장에서 경찰에게 잡힌다. 하지만 천하의 악당 조봉삼이 어찌 순순히 경찰에게 잡혀가랴. “생긴 건 소대거리 같아도 짹 싸기는 여우 뺨치”다는 그의 “동지” 고수길의 평에 걸맞게, 그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탈출극을 성공적으로 감행한다. 탈출에 성공한 다음 그가 했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행님 곁에 붙어서 행님을 지킬 끼요”라는 “충성 맹세에 가슴 뿌듯”해 하는 조봉삼과 같은 인간—조폭 두목이든 “큰손”이든 거물급 악당의 하수가 되어 충실하게 줄개 악당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은 실로 우리 사회를 더욱 멍들게 하는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조폭 주제에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야당 총재를 따라 땡”기다가 “국가 내란 음모”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박준호는 이른바 “애국 지사” 행세를 한다. “출소 기념으로 총재님께서 주”신 “난초 화분”을 어찌도 애지중지하는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도 하는데, 선비의 품격을 상징하기도 한 난초를 “젓먹이 아이 안 듯 가슴에 품”고 다니는 박준호의 모습은 실로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온 몸을 감싼 우리 시대의 수많은 인간들—정치·문화·사회·종교계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속물들—의 전형적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백시종의 소설 가운데 ‘귀공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아그라’다. 이 소설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두 개씩이나 받”았지만 “고엽제 중독”으로 불구가 되어 “삶 그 자체를 오래 전에 직무 유기해 버린” 것처럼 보이는 ‘나’의 아버지와 그 가족이 등장한다. 이런 아버지는 “우리 집”에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 없어졌으면 더욱 편안한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특히 누구보다도 ‘나’의 형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한다.” “패륜아”라고 해도 마땅할 ‘나’의 형은 현재 “빳쟁이 조폭들에게 쫓겨” 피신해 있는 처지며, 그의 아내는 “비서 겸 운전수였던 젊은 녀석과 줄행랑을 놓”은 상태이다. 아무튼, 집안 식구들의 무시 속에서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집을 찾아” 오기도 했지만, 마침내 “일 년에 대여섯 번, 명절을 끼고 마치 먼 친척 종갓집 방문하듯 하다

가 그마저 뜬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나’의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이미 “남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남편 역할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수행하는 사람”은 “복덕방 김 씨”다. ‘나’는 어떠한가. 어릴 때부터 “김 씨와 어머니가 벌이는 가증스런 간통 장면”에 익숙해 있는 ‘나’는 “거의가 많게든 적게든 어머니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여자들, “나보다 열 살쯤 더 먹은 손위 여자”들을 상대로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여성 편력”에 몰두한다. 특히 ‘나’는 “복덕방 김 씨의 처제”인 조미숙과 “유별나고 끈덕”진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녀가 “시집가기 1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첫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오늘까지도 허겁지겁 계속”할 정도이다. ‘나’는 이를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똑똑한 아들 입장”에서 하는 짓이라는 “변명”까지 갖추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그런 대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다. “아버지는 우리 식구 중 유별나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은 ‘나’에게 “소포로 불쑥” “핸드폰”을 “선물”할 정도이다. 취중에 온갖 “하소연”과 함께 “이 애비는 우리 우리 강석이허고 전화 통화하는 재미로 사능기라”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물론 그런 아버지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이나 누나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전화를 끊어 버리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는 이름 그대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무튼, 그런 아버지가 지하철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합동 분향소”에 모여 가족이 오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오열? 당연히 아버지의 죽음에 온 가족이 오열한다. 하지만 “누나도 그러하고, 매형도 그러하고, 형도 그러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그러하지만, 겉으로

“꺼이꺼이 울기는 하”나 “내심 아이고 좋아라, 히죽히죽 웃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처럼 아버지의 죽음이 이들에게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보상금” 때문이다. ‘나’는 어떠한가. 딱히 그 때문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나’도 아버지의 죽음을 반기고 있다.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더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나’의 어머니의 극성맞음이나 “보상금 액수”에 대한 ‘나’의 형의 “집요”한 관심, 그리고 보상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열린 “가족 회의” — 이 모두는 돈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을 더할 수 없이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가족 회의”에서 형과 어머니는 보상금 분배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는데, 작가 백시종이 아니라면 이 정황을 과연 누가 것처럼 극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재현할 수 있겠는가. “가족 회의”가 있고 며칠 후 드디어 “보상금이 확정 지급된”다. 문제는 “아버지만 유일하게 신원을 밝히는 DNA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수습 대책위”는 “국민 성금 모금 액인 위로금 나눌 때, 특별 찬조금 조로 3천만 원을 더 지불한다는 조건” 아래 “신원이 확인”되고 “보상금 지급이 끝난 43명과 함께 합동 장례식에 참석해 줄 것을 제의”하기도 한다. 형이 더 많은 돈을 타낼 욕심으로 참석에 반대하자, “어머니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듯 고분고분 장남의 뜻에 따른다.” 형과 어머니는 분배의 문제를 놓고는 침예하게 대립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의 면에서는 ‘한마음’이다.

보상금 때문에 모두가 희희낙락하고 있을 즈음, ‘뜻하지 않게’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어느 날 가족은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강원도 원주에서 나의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마 꼭 죽어야 할 웬수”가 “없어서는 안 되는 평화의 화신”이 되었다고 믿었는데, 아직 살아 있다니?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선 보상금부터 돌려줘야 할 끼고,” 게다가 “위로금 2억 4천도 날아간다.” “살아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원주로” 가는 도중, 형이 “철물점”을 들러 “삽과 곡괭이 두 자루씩 사서” 몰고 간 차 “뒷좌석에 신는다.” 형의 의도를 알면서도 ‘나’는 “소리소리 지를 만큼”의 용기도 없다. 침묵에 잠겨 원주로 향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한 어머니에게 형은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이처럼 모자간이 패륜의 음모에 한통속이 되어가는 과정에, 어머니는 “생긴 것보다 소갈머리가 꼭 맥힌 놈”인 ‘내’가 “산통 깰지 모린다”는 걱정의 말을 덧붙인다. “알아서 헐” 것이라는 형의 말에, 가족 회의에서 보상금 배분 문제를 놓고 “장남도 장남 나름”이라고 하면서 것처럼 형을 몰아붙이던 어머니가 “우리 집 장남”인 “니가 다 알아서” 할 것을 당부한다.

과연 돈이 인간을 이 정도까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될 것 같아 보이는 이 같은 패륜의 음모가 역설적으로 대단히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때로는 짐짓 천연덕스럽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익살맞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가의 필치 때문일까. 아니면, 이 같은 비현실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개연성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 자체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무엇이 되든, 이야기는 또 하나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원주에 도착하여 ‘나’와 형은 교통사고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된다. ‘나’의 형은 가해자 측과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놓고 흥정”을 한다. 아버지의 “장례비”를 놓고 “흥정”하는 형이 “내 옆에서 있다는 사실”이 ‘나’는 “부끄럽다.” 그리하여 “나는 형의 옆구리를 쿡쿡 찌렀지만 형은 아무 반응이 없다.” ‘나’는 “울컥, 울먹임이 솟구”치는 것을 참으며 “종합병

원으로 옮기모” 혹시 아버지가 “더 살 수 있는”가를 의사에게 묻는다. 하지만 회의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그리하여 “5백만 원”의 장례비와 함께 “아버지를 인수”한다. 마지막 순간에 의사는 아버지가 지녔던 소지품과 함께 “환자가 끝까지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약”도 넘긴다. 그런데 그것은 “비아그라”였다.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는 패륜이 만연한 세상에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양식과 인간성을 대변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비아그라”를 “끝까지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나’의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추중에 전화로 ‘나’에게 “이 아버지 께까지 강석이 니가 [우매를] 두 배 세 배 사랑해 줘야 허능기라”고 말할 만큼 어머니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가 하필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도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것이 왜 “비아그라”인가. 그것이 “복덕방 김씨”에게 빼앗긴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삶 그 자체를 오래 전에 직무 유기해 버린” 것처럼 보이던 ‘나’의 아버지가 느꼈음직한 삶에 대한 집요한 의지와 절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때문에 백시종의 ‘비아그라’가 단순한 세태 고발의 소설로 읽히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가 “끝까지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바로 그 “비아그라”는 세속적 의미에서 이 약이 연상시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음직한 삶에 대한 갈망의 깊이와 절망의 깊이를 우리에게 새삼 가늠케 함으로써, 이 소설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이와 폭을 더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인간들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패륜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냉정한 눈길을 보내면서도 ‘나’라는 작중 인물을 통해 인간성의 마지노선을 지키고자 했던 작가

의 따뜻한 눈길이,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의 손에 “비아그라”를 쥐어 준 것이리라.

5

이제까지 우리는 백시종의 작품 세계를 (1) 허위와 가식의 옷을 벗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2) 바다의 매혹에 삶을 내맡기는 사람들, (3) 허위와 가식의 옷을 두껍게 껴입거나 그런 사실 자체도 의식하지 못한 채 비인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처럼 정해진 시각에서의 논의만으로는 도저히 그 의의(意義, significance)를 포착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또는 의미(意味, meaning)를 드러내기 어려운 작품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지고 보면, 백시종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의 작품 세계도 일정한 시각에 묶여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 작품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함의를 포착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요컨대, 백시종의 작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제까지 이해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논의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는 일반론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함이다. 아니, 인간의 삶만큼이나 다면적인 특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정해진 지면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겠다는 식의 만용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일반론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백시종의 작품 세계를 따라가면서 느낀 포괄적인 ‘인상’ — 말하자면, 개별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 — 을 소박하게나마 밝혀 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백시종의 작품 세계와 관련하여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작가의 ‘입심’이 대단하다는 점일 것이다.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작가의 뛰어난 언변 때문에 어떤 독자라도 그의 이야기에 쉽고 자연스럽게 몰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작중 인물들의 대화가 연극 대사와도 같이 극적인 동시에 자연스럽게다는 점, 이로 인해 인물의 성격과 특징이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점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구사하는 투박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사투리 — 무엇 보다는 남도 사투리 — 는 인물과 작품에 더할 수 없는 생동감을 불어넣어 준다.

차원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백시종의 작품 세계에서는 수많은 남녀가 성적인 면에서 대단히 자유롭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도 있겠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분방하게 주변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뒤따른다. 말할 것도 없이, 작가가 모든 사람들의 분방한 성을 긍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 탐욕, 위선, 이기의 늪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성 — 즉, 자신의 욕욕을 채우기 위한 성 — 에 대해 작가는 당연히 비판적이다. 아울러, 성이 상호 동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이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냉정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적 욕구로서의 성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관대하다. ‘환상 바다’의 꺾저구, ‘비진도’의 오주팔, ‘산너머 북촌’의 달순이 등등이 누리는 성적 자유가 천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성은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근원적인 그 무엇일 수 있다. 성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때로 관대해지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작가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백시종의 작품 세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특징은 그의 적지 않은 작품에서 선악의 구분이 대체로 뚜렷하다는 점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은 대체로 시종일관 선하며 악한 사람은 시종일관 악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중·단편 소설의 경우 장르의 성격상 인물의 성격 변화와 발전을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의 사건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은 백시종의 중·단편 세계에서만큼은 인물의 성격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드물긴 하나 그의 작품을 읽다 보면 사건의 극적 반전이 ‘극적 반전을 위한 극적 반전’이라는 느낌이 들 경우—예컨대, ‘논개’의 끝을 장식하는 주두갑과 박주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의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혹시 작가가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작중 인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이 같은 우리의 문제 제기는 인간에 대한 백시종의 깊은 이해를 짐짓 외면할 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우리의 시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선악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은 이 시대에 이미 희귀종이 된 것은 아닌지? 악한 인간들에게 자기 반성의 기회란 도대체 가능조차 한 것인지? 행여 자기 반성이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면 근본적으로 선한 인간들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닌지? 바로 이런 의문들이 작가 백시종의 시선을 때때로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유도한 것은 아닐까.

사실 자기 반성과 이에 따른 인간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도 백시종의 작품 세계에 적지 않다. 우선 ‘비아그라’를 보자. 소설의 주인공 ‘나’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반긴다. 그것이 돈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돈의 노예로 전락한 형이 너무도 엄청난 패륜을 기도하고 어머니가 은밀하게 이에 동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놓고 “홍정”을 하는 형을 지켜보면서, ‘나’는 비로소 부끄러움에 눈 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에 “아이고 좋아라”하는 ‘내’가 아니다. “종합 병원으로 옮기모” “더 살 수 있는 기지요?”라고 “울먹임”을 참으며 묻는 ‘나’로 변해 있다. ‘나’라는 1인칭 화자를 통해 서술되는 이 이야기의 끝이 “비아그라요”라는 의사의 말인 것도 의미 심장하다. 어쩌면 이 말은 이 이야기의 화자인 ‘내’가 비로소 아버지의 절망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해에 이어 ‘내’가 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인간복’도 등장 인물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 아버지의 삶과 뜻을 계속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던 ‘나’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와 닮은 사람으로 변모해 있지 않은가. “자넨 어쩌면 춘부장을 그대로 닮았나?”라는 회사 사장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나’는 작품의 끝에 가서 가식과 허위의 “옷”을 벗어 던진 채 인간 본연의 옷인 “인간복”만을 걸친 원초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마치 아버지가 죽음의 순간에 그랬듯이.

아마도 이처럼 시각을 달리하여 백시종의 작품 세계를 논의하는 경우 전혀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 따라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이제까지 펼쳐 보인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백시종 연보

출생

1944년 일본 오사카 번두리 야오미나미에서 출생

1945년 해방과 함께 부모의 고향인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1548번지로 귀환

1949년 부친의 직장을 따라 향리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 여수로 옮김

학력

1957년 여수 동국민학교 졸업

1960년 광주 동성중학교 졸업

1963년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1966년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문단 데뷔

1966년 전남일보 신춘문에 동화 당선 '꽃마음' (윤석중 선생 심사).

전남일보 지령 5천호 기념 장편소설 당선 '자라지 않는 나무

들' (박영준, 최정희 선생 심사). 대한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가작 1석 '나루터' (김동리, 안수길, 조연현 선생 심사). 현대

문학 소설 1회 추천 '햇빛 아래' (김동리 선생 추천)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비둘기' (김동리, 황순원,

곽종원 선생 심사). 대한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뚝주

변' (조연현, 안수길 선생 심사)

작품 연보

1967년 단편 '해구' (현대문학) '어떤 원색' (신동아) '일곱시부터 여

덜시' (월간문학)

1968년 단편 '우리들의 전기' (현대문학). 장편소설 연재 '발자국 하
늘에 찍히다' (전남교육)

1969년 단편 '진득복 씨 승천하다' (월간문학). 장편소설 연재 '신화
가 보이는 숲' (삼남교육신문)

1970년 단편 '5퍼센트' (월간문학)

1971년 장편소설 연재 '흐르는 섬' (전남매일신문)

1972년 단편 '아버지 귀신' (월간문학)

1973년 단편 '축축한 화기' (지성) '선창가' (문학사상)

1974년 단편 '망망대해' (문학사상) '일본식' (한국문학) '인간복' (현
대문학)

1975년 단편 '배가 산으로' (한국문학) '서울바다' (문학사상) '환상
바다' (현대문학) '등잔 밑의 어두움' (소설문예) '들끓는 바
다' (동아일보 연재)

1976년 장편소설 연재 '다정한 바다' (새어민). 단편 '아침하는 겨울'
(소설문예) '성치' (현대문학)

1977년 장편소설 연재 '내촌강 진달래' (교육춘추). 단편 '부전나
비' (뿌리깊은 나무) '바다의 함정' (월간중앙) '복망의 바
다' (한국문학)

1978년 장편소설 연재 '바다위를 걷다' (국제신문). 단편 '춤추는
향로' (문학사상). 장편소설 연재 '길을 묻는 여자' (주간여
성) '달래산 달래강' (주간경향)

1979년 단편 '나팔꽃' (문학사상) '박꽃' (부산대학 학보) '그 겨울의
달빛' (농민신문) '불타는 예배당' (소설문예) '냄새나는 바
람' (신동아)

- 1980년 단편 '눈으로 부르는 노래' (현대문학) '장다리 발' (현대문학) '사닥다리' (소설계) '한 오백년' (월간중앙) '우리들의 석양' (문학사상). 중편소설 '환희의 끝' (한국문학)
- 1981년 단편 '새벽을 잡는 그물' (창작과 비평). 중편 '낙진' (월간조선) '청산을 기다리며' (소설문학) '소설국전' (월간중앙) '겨울 두만강' (한국문학)
- 1982년 단편 '틀' (문학사상)
- 1983년 장편소설 연재 '사순절' (전북일보)
- 1984년 단편 '사막일기' (한국문학). 중편 '허상의 다리' (문학사상). 장편소설 연재 '흐르는 돌' (광주일보)
- 1985년 대하장편 연재 '걸어다니는 산' (한국경제신문). 중편 '풍향계' (한국문학)
- 1986년 단편 '마천루' (조간조선)
- 1987년 단편 '하리케인' (한국문학) '이발사 조씨' (문학사상)
- 1989년 중편 '뒤집힌 신화' (여원) '왕과 먹이사슬' (실천문학)
- 1990년 중편 '갈산만의 새' (샘이 깊은 물)
- 1992년 단편 '불타는 유정' (현대문학)
- 1993년 단편 '아버지의 어깨' (신원문화사 간 사화집)
- 1995년 단편 '사그막 삽화' (양평문학) '바람과 포크레인' (경기문학)
- 1996년 장편소설 연재 '깊은 곳 깊은 손' (전남일보)
- 1998년 중편 '그 여름의 풍향계' (한국소설)
- 2000년 중편 '검문' (문학과 의식)
- 2001년 중편 '이과수' (월간문학)
- 2002년 장편소설 연재 '소돔의 아침' (파이낸셜 뉴스). 단편 '논개' (문학나무)

2003년 장편소설 연재 '에덴의 북쪽' (파이낸셜 뉴스). 단편 '귀공자'
(월간문학)

2004년 단편 '비아그라' (문학수첩). 중편 '비진도' (해양문학)

2005년 단편 '주홍빛 점박이 갈매기' (월간문학)

저서

1976년 장편소설 『자라지 않는 나무들』(월간문학사)

1977년 첫 창작집 『망망대해』(범우사)

1978년 창작집 『들끓는 바다』(삼중당)

1979년 창작집 『복망의 바다』(태창문화사). 장편소설 『달래산 달래
강』(문음사) 『길을 묻는 여자』(일월서각)

1980년 장편소설 『육녀』(내외 출판사) 『흐르는 돌』(세광공사) 『비,
축제에 쏟아지다』(동평사). 콩트집 『선인장 여자』(태평양)

1981년 장편소설 『흐르는 방』(세광공사)

1982년 창작집 『겨울 두만강』(우석출판사)

1985년 창작집 『환희의 끝』(친우)

1986년 중편집 『허상의 다리』(고려원). 대하장편소설 『걸어다니는
산』(전7권, 현암사)

1987년 창작집 『청산을 기다리며』(일신서적)

1989년 장편소설 『돈황제』(실천문학)

1990년 장편소설 『바람난 황제』(서울문화)

1993년 장편소설 『서울의 눈물』(들꽃세상)

1994년 전작대하장편 『대물』(전5권, 문학수첩)

1996년 대하장편 『재벌본색』(전5권, 문학수첩)

1997년 장편소설 『후투티 여자』(전2권, 세훈출판)

2002년 창작집 『그 여름의 풍향계』(문학수첩)

2003년 창작집 『서랍속의 반란』(문학수첩)

2004년 창작집 『주홍빛 점박이 갈매기』(문학나무)

수상

1975년 제1회 한국소설문학상 '망망대해'

2002년 제38회 한국문학상 '그 여름의 풍향계'

제10회 오영수문학상 '이과수'

2003년 제7회 서포 김만중문학상 '귀공자'

2004년 제2회 채만식문학상 '서랍속의 반란'

문단 경력

1997년 한국문인협회 양평지부 회장

1999년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부이사장 역임

사단법인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 상임이사

2003년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회장

문학동우회(동아일보출신문인회) 회장

2004년 사단법인 맑은물 사랑 실천협의회 공동대표

만우 박영준 문학상 제정

2005년 계간문예 창간

GS문학상 제정

이종구수필문학상 제정

봉황(鳳凰)의 터 곡성

곡성문화원장 김 학 근

도선국사 예언한 봉황의 터
예로부터 산자수명한 옥천 골

오동나무 가지에 노니는 봉황
날마다 죽실을 먹는 봉황

봉황을 밤낮 없이 지키는 고양이 내
지기가 빠질까 응시하는 고양이 채

구례로 흐름을 지키는 범골
지리산으로 날까봐 긴장한 천마산

한국의 역사를 여는 봉황대 단군전
호국의 영혼이 잠드신 충의 탑

못 새의 왕 봉황새
아담한 등지에 알을 품은 채

맑은 순자강 메추리 노닐고
해마다 발전하는 봉황의 터 곡성

복숭아 꽃물

우금수 시

낭송 장숙자(자운영독서회)

복숭아 꽃물은
어머니 얼굴

첫눈 올 때까지 간수하면
좋은 신랑감 만난단다

아주까리 손등에
붉은 실 매듭지어
손톱마다 어머니 마음
꽃으로 수놓아 주시던
그 푸른 시절 하 그리워

양지바른 토담 밑에
복숭아 총총 심어
딸아이 손톱에 사랑 그려 주고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멀리 간 내 아이 오지를 알아
제 손톱 곱게 다듬어
어머니 얼굴 예쁘게 그리고
어머니 마음도 그렸습니다.

복숭아 꽃 흐드러진 계절이 오면
가슴에도 복숭아 꽃물이 들어
어머니가 몹시 그립습니다

복숭아 꽃물은 어머니 얼굴
보고 또 보고픈 어머니 웃음

바람들의 길

임보 시 낭송

신춘자(자운영독서회)

언덕 위에 서면 바람들의 길이 보였다.
바람들도 빛깔이 있었다.
투명하지만 색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빛깔이었다.
감귤 밭을 넘어온 남풍은 노오란 빛
전나무 숲 속을 빠져나온 북풍은 청록빛
쪽빛 바다를 밟고 온 서풍은 남빛이었다.
바람들은 들판에서 서로 만나
오색 실타래들이 꼬이듯이 몸을 비비며 돌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바람의 실가닥은 풀리어
초가집 사립문 틈으로 슬며시 스며들기도 하고
어떤 가닥은 잠자는 송아지 코 속으로 조용히 빨려들기도 했다.
문득 킁킁 장끼 한 마리 숲으로 깨고 솟아오르자
황·록·청·백·홍 오색 바람들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와
눈부신 날개를 허공에 만들었다.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 어찌된 일인가
감귤 밭을 향해서는 다시 황색 바람이
쪽빛 바다쪽으론 다시 남색 바람이
전나무 숲으로 다시 청록색 바람들이
떼를 지어 달려가고 있었다.

작은 소망

낭송 김미선(설산의 향기독서회)

불하나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지듯
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
그를 위해 꿈 하나 접으렵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을 땐
그와함께 슬픈 가슴을 달래고 싶습니다.

그가 미워지려 할 땐
그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음을 그리며
마음을 비우렵니다.

살면서 더 많은 어려움 있겠지만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천천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지글 낭독 야마모토슈우꼬(자운영독서회)

아버님께

아버님 벌써 가을이네요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어요

조금 싸늘한 바람이 가을향기를 전해 주네요

황금물결을 이룬 논은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아버님 올해는 어떠셨어요?

언제나 묵묵히 일하시는 아버님!

일본인인 저를 며느리로 들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님께서 일제시대 일본군의 짐을 운반하기 위해 강제징집 되셨었고 그로 인해 경찰의 총에 맞고 수용까지 당하셨다는 얘기를 고모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전 마음이 많이 아파서 몸돌바를 몰랐었습니다.

아버님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할지 숨쉬기도 힘들만큼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겪으셨으면서도 저를 받아 주셨다는 사실이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하느님도 부처님도 안믿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힘드셨던 과거가 있다는 것을...

또,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만 하셨던 아버님께서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홀로 열심히 살아 오셨더군요.

이제 소리도 잘 못 들으시고 침묵의 세계만이 가득하신 아버지님...

그런 아버님께서 미소를 띄우실때가 있습니다.

그건 손자인 보경이를 봤을 때...

당신께서 바라보시는 눈빛은 깊고 넓고 끊임없는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아버님께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아버님께 고생이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손주들을 통해 기쁨과 행복의 날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버님이 살아오셨던 것처럼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아버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도 염소풀을 하러 가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은 왠지 슬프기도 하고 당신이 살아오신 인생의 발자취...

아버님! 오늘은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마 행복의 멜로디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네요. 건강하고 오래 오래 사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느리 - 슈우꼬 올림

대통령기 제26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전라남도대회 편지글 일반부 우수상수상작

추억

낭송 김금자(설산의 향기독서회)

높푸른 하늘 몸 흔들며
다정하게 거닐던 낙엽 길
하늘은 온통 햇빛만 가득하고
음악소리만 들린다면
그대를 그리워하며
가슴이 아련히 되살아나는
이 겨울 따뜻하게 보낼수 만 있다면
빛고운 사랑이 추억으로 남아있네.

기행문 낭독 정숙회(설산의향기독서회)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문화원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지리산생태문화 탐험이 작년에도 이어 올해에도 이어졌다. 이박삼일로 초등학교와 학부모 위주의 탐험이라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미리 포기를 했는데 여행을 다녀보면 볼수록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해마다 달라짐을 느껴 올해에는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문화원 사무국장님께 미리 부탁을 드려

인솔자 자격으로 참가 하게 되었다.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바쁘게 서둘러 도착한 구민회관에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에 뜨이는 것은 몇 분에 불과 하지만 아버님들의 참석 이었다.

우리가 이번 지리산 탐험은 선비문화, 사찰문화, 서당문화 자연문화 체험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있었다.

처음도착한곳은 선비문화의 한 일면을 볼 수 있는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남계서원에 도착하였다 조선시대학자인 정여창 선생을 모신 사당이다.

사당은 처음에는 제사만 지내는 기능으로 사용해 오다가 1542년(중종37) 경상도 풍기군 수 주세봉(周世鵬)이 관내 순흥 백운동에 고려 유교의 중흥자 안향(安珦)의 옛날집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모아 가르쳤다. 이것이 사(祠)와 제(齋)를 겸비한 최초의 서원으로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이다.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다음으로 세워진 남계서원은 동계와 서계 강당 그리고 사당으로 나뉘어져있었다. 유교사상이 많이 퇴색되어진 요즘 서원을 찾음으로써 충효 사상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아이들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이번 탐험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코스인 사찰문화의 한 부분인 실상사는 천년 역사의 고찰인 점과 구산선문을 함께 개창한 점 등은 우리고장 태안사와도 연관이 있는 절이었다.

실상사는 우리 고장 태안사와 역사를 같이 하는 곳이기에 많이 가보고 싶었던 곳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고 보니 실망이 많이 앞섰다.

천년 고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절도 초라 하니 많이 작았고 주위환경이나 절은 많이 퇴색되어 웅장함보다는 많이 왜소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 절에는 "일본이 흥하면 실상사가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실상사가 흥한다"는 구전이 있는데 이는 천왕봉 아래 범계사에서도 전해지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실상사 경내의 보광전 안에 있는 범종에 일본 열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스님들이 예불할 때마다 종에 그려진 일본 열도를 두들겨 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실상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한다는 구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귀농학교가 절 안에 있어 친환경으로 만든 화장실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냄새는 조금 나지만 자기가 불일을 본 것을 왕겨로 덮어 버리는 옛날식 화장실은 아이들에게는 마냥 신기한 모양이었다 친환경 농법이나 무 농약 또는 저 농약으로 가는 요즘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은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체험문화인 운봉 허브마을로 이동했다 .

아담하고 조용한 허브마을은 철이 지나서 허브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친절하신 사무장님이나 손님을 맞는 마을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환대에 비누를 만드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짜여진 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시려는 곡성 문화

원 사무국장님의 노력 덕분에 해질녘 화업사의 웅장한 모습은 세번째 찾는 화업사이지만 다시금 고개가 숙여지는 장관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 했던가!

국장님의 설명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이층인 각황전과 일층의 대웅전이 같아 보이는 신비한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바쁘고 피곤한 하루의 일정이 지나고 숙소에서의 첫날밤은 핵가족시대이지만 엄마와 단둘이 또는 아빠와 단둘이 잠을 자보지 않은 참가자들에게의 숙소 배정은, 이 탐험에 참가한 많은 부모님에게도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날 밤은 아들이나 딸이 아빠나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또는 아빠나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 해주었을 밤이었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꼬불꼬불한 지리산 청학동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고달팠으나, 막상 도착해보니 들담길이나 전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삼성궁 입구에서 징소리와 함께 나타난 도인께 우리 단군조선의 역사를 듣고, 삼성궁을 둘러 보고 청학동 서당으로 출발하였다.

훈장님의 환영인사와 함께 시작한 전통문화 체험교육은 참가한 부모님이나 학생 인솔 지도교사들에게도 무척이나 재미있고 즐거운 체험이었다.

아주 어렸을적 명절때나 해보았던 널뛰기나 투호 활쏘기 인절미 만들기 체험은 또 다른 체험여행의 묘미였다.

훈장님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께 인사하는 법이나 부모님께 가정의 소중함이나 자녀 지도등을 교육받으며 아쉬운 마지막 밤은 저물어갔다.

이른 아침을 먹고 곡성으로 출발~~

죽곡에 있는 하늘나라마을에 도착해서 한봉에서 나오는 밀랍 초를 만드는 체험을 하였다. 전기가 나갔을 때 켜보고 했던 초이지만 새삼 한봉의 밀랍으로 만든 초는 또 다른 재미를 주었다 민박집에서의 점심식사는 한정식 집처럼 푸짐하게 차려 전라도 음식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맛깔스러웠다. 그분들의 따뜻한 인정까지 포함시켜준 점심식사의 꿀맛 같은 맛이란!

이박살일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은 이렇게 끝났지만 학교공부에 학원공부에 쫓겨있을 아이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다. 이번 여행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아주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시골에 살면서도 아이들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의 발달과 문명사회의 발달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부모와의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좋은 여행이 있어 얼마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는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절실히 실감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말로서 하는 교육과 현장에서의 체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가한 부모님 모두 직접 겪었을 것이다.

흥미 본위 위주의 여행이 아닌 참다운 교육의 장을 좀 더 넓힘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 주고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이 이번 여행의 참된 의미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곡성문화원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참석 해야겠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내년에도 참가시켜 주실거죠?

목포문화원주최 제3회 우리고장문화관광답사 기행문공모전 입상작

하루

낭송 이현자(자운영독서회)

단 하루를 살아도
진실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나봅니다.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 보고
맑음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을 볼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느끼는것은
살아가면서
조금만 마음 너그럽게 살자고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것에 숙연해집니다.

촉촉히 비가 내리는
아주 깊은 밤입니다.
세상도 잠이 들어
숨소리조차 나즈막하게 들리는 이시간
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서성거립니다.

창문을 스치는 빗방울들이
선을 그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가요

진실한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인연의 소중함을 나누면서

행복을 꿈꾸겠습니다

LOVE

낭송 베벨리에로사노(자운영독서
회)

Love is hope.

Love is kind and understanding.

Love is mystery.

Love is life.

Love is a feeling that you never felt it before,
When you felt it your world will be like heaven.

Love is not stupid nor is not blind,
Because in every heartaches you've encountered,
Your love will grow more and more,

And if your hearts burning with love the world will be
forgotten,
That is love it listened only to your heart and mind.

아름다운세상 출가한 스님

조평규 시 낭송 신금순(자운영독서회)

부모형제 따뜻한 정
집에 두고 왔어요.
이름도 나이도
집에 두고 왔어요.
추억도 우정도
집에 두고 왔어요.
입던 옷 쓰던 물건
집에 두고 왔어요.
찾지 않는 거래요.
집에 두고 왔어요.

가을이 되면.....

낭송 박정희 (설산의 향기독서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것처럼
고독한자에게는 행복을
단풍잎으로 채색시켜
황홀한 세상을 만드네

가을이 되면
무거워진 체 몸을
이별의 편지지처럼
보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아닌 희망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

햇볕에 물든 가을은
인생의 여정을 아는것 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사분 썬표.

가족

용혜원 시 낭송 박미향 (자운영독서회)

하늘 아래
행복한 곳은
나의 사랑 나의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슴에 안고
온 천지를 돌며 춤추어도 좋을
나의 아이들.

이토록 살아보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을
평생을 이루어야 할 꿈이라도 깨어
사랑을 주겠습니다.

어설픈 애비의 모습이 싫어
커다란 목소리로 말하지만
애정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것을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뿌리더라도
고통을 웃음으로 답하며
곳곳이 서 있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존재'를 찾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걷지고 못하고 발가락 손가락조차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야. 석고상처럼 굳어진 몸으로 숨만 쉬고 눈만 움직이는 아야의 모습은 나의 내면 깊은 곳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아야가 나라면 어떠했을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신이 가능한 일을 찾아 했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아서 하루의 정리 속에 후회가 많았던 나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아야의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27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웠다. 때론 자살충동도 느끼면서 내 자신이 이유없이 미워졌다. 이 모습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마음이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안간힘을 쓰며 힘들게 생명의 끈을 잡고 매순간을 힘겹게 살아야했던 아야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다.

3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을 읽으면서 주인공 아야와 엄마의 모습은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를 생각나게 만들었다. 늘 마음 속에서만 함께 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희미해져 버린 엄마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아 속이 상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 둘 정도의 고통을 지니고 산단다. 그걸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걸 마음에 새겨둬라.” 아야에게 엄마의 이 말 한마디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 장애라는 아픔을 견디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아아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몇만배 더 힘들었을 엄마. 엄마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딸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고 계시는 엄마가 ‘척수소뇌변성증’이라는 불치병과 투병하는 아아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의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위암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셨던 엄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날 나를 애타게 찾아TEK고 한다. 내가 엄마 얼굴을 보았을 때는 심장이 이미 멈추어버린 후였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20년이 넘도록 밤낮으로 걸어나시며 파출부를 하시면서 삼남매를 가르치셨던 엄마였기에 내 가슴 한 구석에서 ‘불효녀’라는 호칭은 따라 다녔다. 엄마를 생각하는 아아의 마음은 나의 가슴에 눈물샘을 만들었다.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커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아아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내일을 살고 있는 내게 아아의 눈물은 희망의 웃음으로 남았다. 꽃이 되기보다 꽃봉오리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아아의 못다 피운 꽃을 내가 피워야겠다.

울고 싶은 내 마음을 토해 내려고 읽었지만 그 마음을 희망의 웃음으로 미래를 향해가는 나에게 힘이 되어 돌아왔다. 내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나설 것이다.

“장애자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까지 1리터의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힘들고 아픔의 생활이 연속이었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감사하는 마음의 씨앗이 결국 싹이 되어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희망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 낸 아아처럼 나 또한 감사함을 통해 희망과 행복이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

신은 내게 감당할 능력이 있기에 시련을 준다는 어느 환자의 고백을 담은 아야의 일기장은 세상을 다 가진 부자보다도 날 행복하게 해주었다. 토해 내고 싶은 눈물을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과 여유로 바꾸는 용기를 내게 선물한 소중한 책이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존밀러’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대통령기 제26회 국민독서경진

전라남도대회 문고부 최우수상 · 전국대회 문고부 우수상 수상작

사람들이 새가 되고 싶은 까닭을 안다
-수국水國에 와서

이근배 시 낭송 고통실(자운영독서회)

여기 와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에
바다를 가두고 사는 까닭을 안다
바람이 불면 파도로 일어서고
비가 내리면 맨살로 젖는 바다
때로 울고 때로 소리치며
때로 잠들고 때로 꿈꾸는 바다
여기 와 보면
사람들이 하나씩 섬을 키우며
사는 까닭을 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잎이 지고 눈이 내리는 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별빛을 닦아 창에 내걸고
안개와 어둠 속에서도
홀로 반짝이고
홀로 깨어 있는 섬
여기 와 보면
사람들이 새가 되고 싶은 까닭을 안다
꿈의 동지를 틀고
노래를 울어 나르는 새
새가 되어 어느 날 문득
잠들지 않는 섬에 이르러
풀꽃으로 날개를 접고
내리는 까닭을 안다.

화해

윤수민(자운영독서회 김영희 회원 가족)

새벽이 울고 있었다

감아 늘어뜨린 머리칼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온 몸통을 적신다
그대로 집 밖으로 달려 나간 새벽은
하얗게 몸서리를 치며 세상을 흔들었다
한없이 뜬내도 쌓이지 않는 마음의 보풀들이
열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잔잔히 식어가고
눈가가 짓무르도록 서글퍼하며 겨울을 기다리던 새벽은
다시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갔다

그래 그러기로 했다
이 아침을 아는 모두가 새벽을 놓아주기로 한다

부모님의 열가지 큰 은혜

김복희(자운영독서회)

빗속에 품이 보호래 주신 은혜
햇산할때 괴로움을 받으신 은혜
날고 나면 근심있고 안심하신 은혜
쓴것은 삼키고 단것은 내어 먹여주신 은혜
마른자리 내어 주고 젖은자리 대신하신 은혜
젖 먹여 길러주신 은혜
더러운 것 씻어주신 은혜
집 나가면 걱정하신 은혜
자식 위해 악한 죄업짓는 은혜
어른되어 장성해도 가없어 하신 은혜

나의 사랑은 꽃잎 같아라

강 상희(자운영독서회)

오늘도 사랑하는 이의 소식을 듣네
나는 다시금 보랏빛 행복에 젖어드네

나의 사랑은 꽃잎 같아서
벨벳처럼 부드럽고 새의 깃털처럼 연약하다네

하지만 나는 그 꽃잎을 사랑하네
그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사랑하네

이 아름다운 계절엔 꽃잎도 더욱 성숙하여 지네
하늘빛을 담은 그 깊은 눈으로 나를 보네

그 눈빛 너무도 그윽하고 향기로워
난 잠시 태고적 심원으로 돌아간 듯 하네

나의 사랑은 꽃잎 같아서
바라만 보아도 감사와 기쁨에 젖어든다네

희 망

야마모토 슈우코(자운영독서회)

울었네
너도 울었네

치켜 올리는 나의 손
정적의 숲
흘러떨어진 물방울
시간의 파도가 밀려오네

떨리는 작은 몸
껴안고 울었네
돌이 울었네

언젠가는 엄마 맘 알아주겠지
"아팠니? 미안"
마음속 깊이 되뇌이며
"아가 사랑해"
울먹이던 얼굴 환한 꽃 피었네
"엄마 사랑해"
달음질하는 너의 뒷모습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

올려다 본 하늘
붉게 물들며
노르스름해지는 구름 새
새어드는 햇살
다정히 감싸주네

사랑스런 평화-시우

2003년 11월 7일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의 모습

너의 까만 눈동자에

밝은 희망 깃들이고

너의 빨간 입술은

평화의 소망이 물들었고

까르르 웃는 너의 웃음 속엔

기쁨이 철철 넘쳐 나는구나.

우리

하늘의 작은 별인

너!

푸른 햇빛 솟아오르는

소리 들려

소중한 꿈

미래로 달리며

박춘영(자운영독서회)

너의 귀여운 모습에

조그만 불을 켜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우리 모두의 평화.

밝은 지혜의 눈을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겸손한 인내의 입술을

마르지 않는 인정의

입술을 피워주소서.

사랑에 인색하지 않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용서하는 마음

슬기로운 재치로

평탄한 길 열어주시고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게주소서

시집-엄마의 마음-정군자 작,중에서

예쁜나비

김골드(자운영독서회 신현미 회원 가족)

하늘나는
나비 참 예쁘구나

하늘하늘 나는 모습 참 예쁘구나
꽃 옆으로 가서
꽃에 앉아 있는 모습 참 예쁘구나

나비가
친구 만난 모습 참 예쁘구나
나비가
하늘 높이높이 올라가는 모습
참 예쁘구나

나비는 참 예쁘다

봄

김다영(자운영독서회 정희자 회원 가족)

봄은
사람들의
행복 인가봐....

봄은 활짝 핀
꽃과 행복이 닮아서

봄은
꽃의 천국 인가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서

봄은
내 친구 인가봐....

봄이 나를 좋아하듯이
나도 봄을 좋아해서...

겨울새

박혜숙 (자운영독서회)

낙엽진 텅빈 들녘
양상한 나뭇가지 끝에
작은 새 한마리 깃을 접는다

찬바람 석양빛에 갈 곳은 멀고
추수끝 들녘엔 쉼 곳이 없다.

밤은 춥고 길기만 하고
동지 없는 가지 끝에
작은 새 한마리

긴 한숨 지친 날개를 접고
꿈을 꾸다.
태양처럼 따뜻한내일을

정향숙(자운영독서회)

살아 있음의 축복을
함께 끌어안으며, 친구여
새해엔 우리 더욱
아름다운 모국어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자
우리의 모든 말들이 향기로워
잊혀지지 않는 시가 되게 하자

--이해인님의 새해 첫날의 엽서중에서--

설레이는 밤

문하정(자운영독서회)

저녁.

내가 사는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빛을 발한다
대문 앞에서 부터
넓은 마당을 지나 와
동백꽃잎의 빛깔을 띤 눈으로
살포시 내려 앉아 부끄러운 미소를 터트린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도 내려 앉고 있다

큰방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 기침소리만
저 눈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혼 로 외롭다

아이들 장난은 마당 귀퉁이 절구통 안을
작은 놀이터로 만들었다
애꿎은 로봇 장난감들이 스케이트를
탄다고 이 겨울이 더욱 춥다

한 여름 소나기라도 되듯 거침없는 눈
때론 달콤한 솜사탕이 흩어지며 들 틈 사이사이
춤춤히 내려 앉아

올려다 본 밤하늘엔
어둠은 다 사라지고 설레이는 마음만
내 눈위에
내 머리위에
내 입술위에
내 사랑위에
지난밤 외로웠을 내 꿈속에
은빛 개뿔벌레들이 흩어져 논다

가을

정가연(자운영독서회 후꾸다가쓰꼬 회원 가족)

단풍이 울긋불긋
신이 난 아이는
추석에
배, 사과, 밤이 맛있어서
토끼와 놀고

나뭇잎이 사랑살랑
바람에 날아다니는 단풍

아이는
활짝 피어난 꽃
예뻐서 웃고 있는 아이들
놀까말까 재미있게 놀고

동물이 하나도 없네.
동생이랑 놀자.
동생도 유치원 가고 없네.
어떻하나
엄마 옆에서 놀자.

첫째아이, 둘째아이.....엄마

고배진(자운영독서회)

첫째아이는 자신감이 넘쳐 나는 아이.
칭찬받기 좋아하고, 녀석이 좋은 아이.
목소리가 큰아이.
사랑받고, 사랑을 보내 아는 아이.

그런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때론 알밋기도 하다.

둘째아이는 부끄럼이 많은 아이.
조잘대기 좋아하는 아이.
말 따라하기 좋아하는 아이
그래서 누나한테 혼이 나는 아이.

엄마는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정신없이 편들어주기 바쁜 엄마.

엄마가 좋은지 서로 자기 엄마라며 다투기도 한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본다.

김수정(자운영독서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 용혜원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귀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당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동지를 잃은새가
새동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봄·가을 그리고 우리

최선영(자운영독서회)

봄과 가을이 닮았듯, 너와 내가 닮았다

봄은

마른 땅을 뚫고 오른 새싹에 기대어
푸르름을 뿜내고

가을은

지나간 여름의 아쉬움을 달래려 온통 붉고,
화려하게 타 들어가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더라

봄과 가을은 참 닮았더라

메말라 있던 그 잔디에 새잎하며
아쉬움 끝에 타들어 가던 그 가을이
안타깝게 닮았더라

너와 내 시간이 다르고

너와 내 모습이 다르나

우린 봄과 가을처럼 사뭇 닮았더라

당신이 새것을 준비하는 푸른 봄이 라면

그렇게 나는 당신을 닮아

당신을 빛내줄 지는 가을이 되리라.

겨울 바람

신춘자 (자운영독서회)

덜컹덜컹
창문 두드리는 소리 요란한 밤에
어머니는
아가를 포대기에 포옥 싸서
따끈한 아랫목에
토닥거리 재운다.

씨락 씨락 씨락 씨락
탱자나무 가지 사이로
함박눈이 쌓이고

양상한 겨울나무
춥다고 춥다고
밤새 웅웅거려도

이마에 축축하게 땀내음 풍기며
볼이 빨간 아가는
따뜻한 엄마품에
더더욱 파고든다.

날마다 똑같은 일상인줄 알았는데
하루가 일년 되고
하루가 삼십년이 되어

언젠가
지나간 한 날
따스함이 그리워져
동그마한 어깨위로
꽃잎처럼 내리는 눈송이
하염없이 바라보며
작은 미소하나 지어본다.

눈 꽃

김해란(설산의향기독서회)

밤새 이루었나보다.

이른아침 길가에선 가로수들.

양상한 가지위에

새하얀 깃털옷을 입고 있다.

소복소복 눈꽃 피워

반짝이는 나무가지들이

하이얀 미소로 아침인사한다.

호미

임미숙(설산의향기독서회)

오늘도 행복한 날 되라고.
내일은
화창한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어야지....

내일은
간단한 배낭을 메고
무작정 길을 나서야지....

내일은
모자를 둘러쓰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영화를 보며 미지의 세계에 빠져 봐야지....

내일은
밑짚모자에 수건을 걸치고
그동안 모른채 해왔던 뒷땀발을 예쁘게 매주어야지...

내일은
아이들이랑
마을앞 개울가에서
수영도 하고 다슬기도 잡아야지....

내일은
엄마랑 언니랑 전화해서
실컷 수다를 떨어야지....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월요일까지 제출할 서류를 완성해야한다.
언젠가는 내가 하고싶은 내일이 올꺼라
믿으며 묵묵히 자판을 두드린다.

내일은..

무 제

김정애(설산의향기독서회)

..천고 마비의 황금의 계절에
오곡은 익어 씨앗으로 가고
모체만은 초라하고 외롭게 서 있는 모습
내 마음이 한층 괴롭다
세월과 시계침은 일본도 지체없이
새벽 3시 파삭파삭 지는 낙엽은 지고 싶어지랴
가시는 님은 가고싶어 가셨으리
외로운 이몸하나 설땅은 어데일까?
머지 않은 여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싸늘한 땅에 흙으로
가는 날만 기다리노라

희망도 설계도 없는 황혼에 인생 또 하루가 가는구나
서산에 지는 해는 너 갈길을 다 갔느냐?
나의 갈길은 몇십리나 되는지 답좀 해 주오
동지섯달 긴긴 밤 홀로 앉아 마음대로 그려본 인생
창밖에 가로등 환하게 불 밝히고
누구를 기다리는지 너는 내 마음을 알겠지
후회없이 미련없이 가고 싶지만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 내가 못간다

가을 입맞춤

전미숙(설산의향기독서회)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했던 사실을 잊었다
그러한 눈동자가 피어 있었다
싸리꽃 하얗게 떨어져 덮힌 길
화산재 하얗게 뿌리는 산길
참 억새를 가르며 불어온 바람이
뺨을 내밀어 입맞추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했던 사실을 잊었다

가을 여행

임경희(설산의향기독서회)

푸르른 창공은 남빛 물들인
바다 같아
그대와 함께 뛰어 들고파.

하나들 옷을 벗는
곧게 뻗은 가로수 길 따라
속삭이는 낙엽들과 함께
나만의 추억찾아
그곳에 가고파라.

그리운 어머니 얼굴

김정오(설산의향기독서회)

그리운 어머니 얼굴

고향 떠나 찾아온 바닷마을
고향의 산골 향기 이내 없고
낮선 냄새 그윽하다

초가을인데도 추위는 먼저 찾아와
고향생각이 나니
문득 부는 바람이 더욱 더 시럽다.

맑고 고운 공기
길가의 한들거리는 들꽃
우람지고 야무진 앞산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
울 겨울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고향에 계신 보고픈 내 어머니
지금은 무얼하고 계실까

어느 날 길거리 빵집을 지나면서 본 경단
유난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인지라
집으로 단숨에 달려가 드리고 싶지만
그럴수 없어 보고픔만 내 가슴속을 맴돈다

매일 먹는 밥,
어느 곳에서 먹는 들 어머니 손맛과 같을까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이 먹고 싶다
오늘도 먹는 객지밥이 더욱더 차갑다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지만
꼭 신어야 할 문화
그 시간동안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
어머니 지켜드릴 생각하니
2년이 길지 않다.

어머니 보고픈 맘
무슨 말로 형용하라
그리움만
한없이 커간다.

휴 식

정미원(설산의향기독서회)

파란 하늘에 흩어져 있는 구름이
밝은 햇살을 받으며 황금빛 정원을 수놓았다.

깔깔 거리며 흘러 가는듯 솜털 구름은
한껏 뛰어 놀다 다투는 아이들을 보는듯 하다.

가늘게 띄워지는 해맑은 미소는
구름 한편에 아담하고 예쁜 집을 그려놓고

커다란 밤 나무에 줄을 늘어
기다란 의자에 앉은 나를 그려놓고

황금정원에 가득찬 향기 사이로
나의 그대를 그려 놓는다.

아름다운 내님

이미선(설산의향기독서회)

항상 마음이 푸른 밤 하늘의 별같은 이여

세상 유혹과 불의 앞에서도 언제나 의연한 이여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나의 님이여

거친 삶의 별판에서

결코 화려하진 않으나 늘 눈부신

그대가 있어 세상이 아름다워요.

나락

장은아(설산의향기독서회)

한줌 한줌 익어주는

한톨의 누런 쌀 알

거센 바람과 힘든 욕정속에

곳곳하게 걸어온 오직 한길...

너로 인해 내가 다시 태어난다.

작은 한톨이 모여서

모든이의 힘이 되듯이...

세상살이를 지탱해 나가는 나의 원동력.

심청의 어머니

김해란 (설산의향기독서회)

한 줄기 흐르는 젓줄 섬진강가에

그대의 사랑을 남겨두고

어이 떠나갔을까 나의 님이여

말없이 내민 손 사랑에 목이 매어

묵묵히 지켜보는 어머니... 어머니...

당신의 핏줄을 품고 안고서

복받쳐 오르는 사랑을 주고 싶어

어이 떠나갔을까 나의 한이여

지난 세월 슬한 어려움 속에 살았건만

이제는 하염없는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님 어머니... 어머니...

어이 떠나갔을까 나의 사랑이여

사랑으로 무르익은 가을 들녘에

출렁이는 가을바람 가슴깊이 파고들적에

가슴 한켠 아리는 웅어리

어머니의 그리움...그리움...

철길 목 건너서 유유히 흐르는

어머니의 젓줄! 섬진강이여...

심청 고장 곡성의 풍성한 황금 들녘은

애절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여라...

마흔 여덟

이경례(설산의향기독서회)

차박 차박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한달여만의 여유로운 외출이 시작되는 아침
이렇게 시작한 5월의 하루가
이토록 눈이 부시게 아름다울 줄이야

잔뜩 빗방울을 머금은 연초록의 잎사귀들
우거진 숲 사이로 간간이 보여지는
다정한 무덤들
생전에도 저토록 다정하였을까
유난스레 깔끔하고 정다운 한쌍의 묘
부부사이를 바라본다

산모퉁이 돌아 초록에
에워싸인 빨강색 지붕의 예쁜집
비스듬한 언덕위에 오두마니 선채
지친 몸과 마음 달래준다

산 언저리를 뒤덮은 보라색 등나무꽃
보일 듯 말 듯 저만치에서 아카시아 꽃방울들이
얼굴을 내민다
바위 틈새에 끼어 자란 소나무 한그루
피워낸 모습 아름다워 시선 멈추게하고
흐르는 계곡물 따라 지나온 내 삶이 함께 흐른다

마흔여덟의 외출
찬란히 피어난 5월의 푸르름처럼
날마다 내 마음도 풍성하였으면.

눈사람

임혜진(설산의향기독서회)

은세상을
하얗게 물들인
겨울눈꽃들을
한웅큼...
한웅큼씩...
몽쳐서
너를 향해 굴러간다.

상처난 사랑을
밤새 열병으로
씩씩대는
아이 곁에 앉아
얼음주머니로
열을 내리다
지쳐하는 표정이 보이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
재워주던 엄마처럼
너는 그렇게 내게로 굴러온다.

어색한 웃음으로
다가선 나에게
살짝 윙크를 하며
아픈 추억들을
담아가 버린
숯덩이 두 눈
너만의 향기를 알게 될
몽통한 코
보일 듯 말듯 한
미소를 짓는 입으로
너와 나의 사랑을
이야기 하는
눈사람을 만든다.

만 추

김민좌(설산의향기독서회)

그렇게 푸르던 잎사귀들

다 떠나 보내고

황혼 빛 님은 감이 몇알

대롱 대롱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

이겨내고

무덤덤한 여름에 살을 찌우더니

이 가을,

뽕알개 분까지 칠하고서

누굴 기다리나.

자운영·설산의향기독서회 활동내역(자매결연중심으로)

- 2002년6월18일 '자운영독서회' 발족
- 2003년4월8일 강진주부독서회와 자매결연체결 및 강진문학기행
(강진군립도서관, 영랑생가, 다산초당, 청자박물관견학)
- 2003년10월4일 강진주부독서회곡성방문, 자운영과 함께(심청축제장, 태안사, 옥
과 미술관견학)
- 2004년4월20일 강진주부독서회와의 문학기행
(평사리토지마을견학, 쌍계사, 화엄사탐방)
- 2004년9월8일 '설산의향기독서회' 발족
- 2004년9월15일 작가와의만남:시인고재종초청강연및토론회
(자운영·설산의향기공동 참여)
- 2005년4월12일 자운영·설산의향기독서회 자매결연체결 및 문학기행
(고창미당문학관, 선운사탐방)
- 2005년5월11일 한승원작가와의만남 자운영·설산의향기공동참여
- 2005년12월19일 詩가 있는 오후(시낭송·시화전) 자운영·설산의향기공동참여
- 2006년6월9일 장흥 이청준 작가 생가 방문(자운영·설산의향기공동참여)
- 2006년6월29일 작가와의만남 이근배시인초청강연 및 시낭송공연
(자운영·설산공동참여)
- 2006년10월20일 자운영·설산의향기 공동문학기행
(아리랑문학관, 김제벽골제, 금산사, 금산교회방문)
- 2006년 9월30일 대통령기제26회국민독서경진대회(자운영·설산의향기공동참여)
전남대회단체부최우수상 및 개인부 우수상수상,
전국대회단체부우수상 및 개인부 우수상수상
- 2007년1월24일 백시종작가와의 만남 및 詩가 있는 오후(시낭송·시화전)
(자운영·설산의향기독서회공동참여)